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5/11~5/15)

“AI 실적 장세와 금리·유가 변수의 충돌 구간, 결국 실적이 시장 방향을 좌우하는 국면”

-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과 금리·유가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주간
- 현 시장의 핵심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이 뒷받침되는 실적 장세
-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 상향 확인 업종 중심의 선택적 비중 확대 전략 유효
- 유망 섹터는 AI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로봇 관련 업종 등

현재 시장 핵심은
단순 기대감이 아닌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에
편승하며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과 금리, 유가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

금주 국내 증시는 AI·반도체 중심의 실적 상향 흐름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금리·유가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현재 시장의 핵심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DDR·NAND 업황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코스피 EPS 레벨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단순 HBM에 국한되지 않고 레거시 메모리까지 확산되는 점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후공정·기판·테스트 소켓 기업까지 실적 기대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시장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다만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진행된 상태다. 최근 코스피 급등 이후 외국인 선물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CPI·PPI·소매판매 발표와 MSCI 리뷰, 옵션만기일 등이 겹치는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될 경우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재차 나타나며 성장주 중심 차익실현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물가 안정 흐름이 재확인될 경우 AI·반도체 중심의 추가 상승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AI 메모리, 후공정 반도체,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로봇

추격 매수보다 실적 상향이 확인되는 업종 중심의 선택적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

금주 시장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 성격이 강하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업종은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추격매수보다 실적 상향이 확인되는 업종 중심의 선택적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AI 메모리·반도체 후공정·전력 인프라·증권·금융 업종은 실적과 유동성이 동시에 유입되는 대표 업종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화장품, K-뷰티, 로봇, 미용기기 등 소비 및 순환매 업종도 단기 수급 모멘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관심 종목

금주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005930), SK 하이닉스(000660), 삼성전기(009150), ISC(095340), 피에스케이(319660), HD 현대일렉트릭(267260), LS ELECTRIC(010120), 한국금융지주(071050), KB 금융(105560), LIG 넥스원(079550)을 제시한다.

[금주 5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7,250 ~ 7,650 pt
전망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7,250 ~ 7,650 포인트로 제시한다.

금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7,250~7,650pt 로 제시한다. 시장 전체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 과열 부담과 이벤트 리스크가 혼재된 만큼 업종별·종목별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실적 향상이 확인되는 업종과 단순 테마성 수급만 유입된 종목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5대 핵심 이슈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반도체 실적 상황 지속 여부

현재 삼성전자·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공급 확대와 DDR·NAND 가격 반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레거시 메모리 가격 반등은 시장 예상보다 강한 흐름이며, 이는 메모리 업황 회복이 일부 제품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은 삼성전기, ISC, 피에스케이, 심텍 등 IT 소부장 전반의 실적 기대를 자극하는 핵심 변수다.

둘째, 미국 CPI·PPI 발표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기대감보다도 금리 안정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수급과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물가 안정이 확인되면 AI·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은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MSCI 리뷰와 옵션만기 수급 변수

외국인 선물 포지션과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급등했던 반도체·전력기기·증권 업종은 단기 차익실현 압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AI 전력 인프라 확대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망 증설 흐름은 단기 테마를 넘어 중장기 산업 구조 변화에 가깝다. 이에 따라 HD 현대일렉트릭·LS ELECTRIC·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업종의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유동성 장세 지속 여부

국내 고객예탁금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 역시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장은 실적과 유동성이 동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며, 이는 주도주 중심 강세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

상승 요인

첫째, 반도체 중심 EPS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반도체 업종 영업이익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메모리 가격 반등과 AI 서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HBM 중심 수요 확대는 단순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결된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다. 글로벌 유동성과 국내 고객예탁금 모두 역사적 고점 수준이며,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연준의 긴축 재개 가능성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흐름이다.

셋째, 금융·증권 업종 실적 개선이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자산시장 강세 흐름 속에서 증권·은행 업종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 특히 증권주는 거래대금 증가와 자산운용 확대, 배당 및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하락 요인

첫 번째는 단기 과열 부담이다. 최근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 급등 이후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단기 이격 부담이 상당히 확대된 상태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상승 가능성이다. 미국 CPI 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미국채 금리 상승과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변수에 민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가 상승 리스크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재자극과 금리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변수 요인

우선 미·중 정상회담 여부와 그 결과가 중요하다. 기술·무역 갈등 완화 여부에 따라 반도체와 수출주 투자심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달러/원 환율 흐름 역시 중요하다. 환율이 다시 1,460 원대로 상승할 경우 외국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 가이드런스 변화 여부도 핵심 변수다. 현재 시장은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장세이며, 가이드런스 상향 여부가 업종별 수급 차이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및 주요 관심 10 종목]

금주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IT 소부장, AI 전력 인프라, 금융·증권, 방산·기계, K-뷰티·소비재 중심으로 압축된다.

반도체 업종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서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업황 개선 강도가 가장 강하다.

전력 인프라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송배전 투자 증가 수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증권 업종은 거래대금 증가와 주주환원 확대 흐름이 긍정적이다.

방산 업종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재무장 흐름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으며, K 뷰티·소비재 업종은 소비 심리 회복과 해외 매출 성장 흐름이 핵심이다.

금주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005930), SK 하이닉스(000660), 삼성전기(009150), ISC(095340), 피에스케이(319660), HD 현대일렉트릭(267260), LS ELECTRIC(010120), 한국금융지주(071050), KB 금융(105560), LIG 넥스원(079550)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DDR·NAND 가격 상승과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동시에 반영되는 핵심 대장주이며, SK 하이닉스는 HBM 중심 AI 메모리 공급 확대 수혜가 가장 강한 종목이다.

삼성전기는 AI 서버·FCBGA 기판 수요 확대와 MLCC 업황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ISC는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가 핵심이며, 피에스케이는 후공정 투자 확대 수혜가 본격화되는 장비주다.

HD 현대일렉트릭과 LS ELECTRIC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 수혜가 기대되며, 한국금융지주와 KB 금융은 거래대금 증가와 주주환원 확대가 핵심 투자 포인트다.

LIG 넥스원은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와 수주 모멘텀 강화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1] 금주 주요 투자 유망 관심 10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569,725.8	268,500	+21.77
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1,201,616.2	1,686,000	+31.10
009150	삼성전기	IT하드웨어	68,270.0	914,000	+9.86
095340	ISC	반도체	5,373.5	253,500	+4.54
319660	피에스케이	반도체	3,012.5	104,000	+17.25
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50,574.1	1,403,000	+12.06
010120	LS ELECTRIC	기계	46,950.0	313,000	+12.59
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14,962.4	268,500	+11.88
105560	KB금융	은행	60,289.9	161,700	+0.75
079550	Lig데이터스퀘어이코노믹스	상사, 자본재	18,480.0	840,000	-10.73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현재 시장은
실적 장세**

현재 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를 넘어, 실제 실적 향상이 확인되기 시작한 실적 장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주는 단순 테마 추격보다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전력 인프라·금융처럼 실적과 유동성이 동시에 유입되는 업종은 조정 때마다 매수세가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만 계속 상승하는
주도주 중심 장세**

다만 단기 과열 부담과 미국 물가·금리 변수는 반드시 병행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격적 추격매수보다 주도주 눌림목 매수와 실적 기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현재 시장의 핵심은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 자금이 계속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이며, 선행 EPS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한 주도주 중심 강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금주 주요 미국,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미국,
소비는 둔화,
물가는 높으며,
고용은 안정적 흐름**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는 “소비는 둔화되겠지만 급락하지는 않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은 완만히 냉각되는 흐름”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3.7% 수준으로 예상되며, 직전대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해석된다. 헤드라인 CPI가 다시 3% 후반대로 올라설 경우 연준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3%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 에너지 가격만이 아니라 서비스·주거·임금 중심의 기초 물가 압력이 계속 남아 있다는 해석이 강화될 수 있다.

소비는 이전보다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4월 소매판매와 근원 소매판매는 모두 0.6% 수준으로 예상되며, 직전 1% 후반대 증가율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마이너스 전환이 아닌 플러스 증가세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가계 소비가 급격히 붕괴되기보다는 **강한 소비 국면에서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 가까운 흐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 Census 기준 소매판매 흐름도 고금리와 고물가 부담 속에서도 소비 자체는 유지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시장은 완만한 냉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6K 수준으로 예상되며 직전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는 신중해질 수 있지만,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침체 국면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향후에도 냉각은 진행되지만 붕괴는 아닌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시사점
5/11(월)	기존주택판매(4월)	4.05M	3.98M	주택 거래가 저점에서 일부 회복됐지만 금리 부담은 여전
5/12(화)	CPI MoM(4월)	0.6%	0.9%	월간 물가는 직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CPI YoY(4월)	3.7%	3.3%	전년 대비 물가가 재상승하며 연준의 조기 완화 기대 제약
	근원 CPI MoM(4월)	0.3%	0.2%	기초 물가가 다시 높아져 서비스·주거 물가 부담 상존
5/13(수)	PPI MoM(4월)	0.5%	0.5%	기업단 가격 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CPI 전가 우려 지속
5/14(목)	소매판매 MoM(4월)	0.6%	1.7%	소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플러스 유지
	근원 소매판매 MoM(4월)	0.6%	1.9%	기초 소비는 유지되지만 직전 대비 둔화 폭 크다
	신규 실업수당청구	206K	200K	고용은 완만히 식고 있으나 아직 안정적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은 종목 수는 많지 않지만, 시장 해석상 의미가 큰 조합이다.

핵심은 AI 전력,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인프라, 오프프라이스 소비이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 사이먼프로퍼티(SPG), 폭스(FOX/FOXA), STERIS(STE), 모자이크(MOS), Amentum(AMTM), Zebra Tech(ZBRA), 시스코(CSCO),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로스스토어스(ROST) 등이 금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축은 AI 인프라 투자 확산이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는 원전·전력 공급 기반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수혜 여부를 보여주는 종목이고, 시스코(CSCO)는 AI 네트워크 장비 수요를 확인하는 종목이며,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는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기업이다.

Reuters 에 따르면 시스코가 AI 수요에 힘입어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했고,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역시 AI 칩 수요가 장비 주문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주 실적은 AI 수요가 칩,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두 번째 축은 소비와 부동산의 방어력이다. 로스스토어스(ROST)는 소비 둔화 국면에서 오프프라이스 유통 채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사이먼프로퍼티(SPG)는 쇼핑물 임대율과 소비 트래픽을 통해 오프라인 소비의 질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폭스(FOX/FOXA)는 광고 경기와 콘텐츠 수익성을 반영하고, Zebra Tech(ZBRA)는 물류·리테일 자동화 투자 흐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세 번째 측은 방어적 헬스케어와 산업 서비스 점검이다.

STERIS(STE)는 의료 멸균·감염관리 수요를 보여주는 방어적 헬스케어 장비 기업이고, **Amentum(AMTM)**은 정부·국방·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다. **모자이크(MOS)**는 비료 가격과 농산물 투자 사이클에 민감해, 경기 변수보다 원자재·농업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종목이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등

일 자	종 목
5/11(월)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 사이먼프로퍼티(SPG), 폭스(FOX/FOXA), STERIS(STE), 모자이크(MOS), Amentum(AMTM)
5/12(화)	Zebra Tech(ZBRA)
5/13(수)	시스코(CSCO)
5/14(목)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로스스토어스(ROST)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종합적으로 AI 인프라 확산과 소비 방어력 점검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AI 인프라 확산 여부와 소비 방어력을 동시에 점검하는 주간**으로 볼 수 있다.

CEG, CSCO, AMAT가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 AI 투자 사이클의 폭이 전력·네트워크·반도체 장비까지 넓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들 기업이 수주 지연이나 보수적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면 AI 관련 밸류체인 일부에서 단기 속도 조절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